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11.(목) 11:00 < 12.12.(금) 조간 > 배포 2025. 12. 10.(수)

불확실한 통상환경 하, 한일 간 투자 공급망 협력 강화

-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재팬클럽(SJC)에서 일본 외투기업과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11.(목) 14:30-15:30 서울프레스센터 SJC 회의실에서 서울재팬클럽(SJC)* 및 일본계 외투기업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1997년 설립, 한국 진출 일본기업 지원 및 한일 경협 활성화 목적 등, 회원사 300여 개

이번 간담회는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 하에서, 작년 일본의 대한(對韓)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역대 최고치(61.2억불)로 국별 순위에서도 1위를 기록하는 등 일본의 대한(對韓)투자 위상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투자 중인 일본 기업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긴밀하게 파악하고 한국에서의 투자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마쓰우라 데쓰야 SJC 이사장(한국미쓰비시 사장)을 비롯하여 국내 투자 주요 일본 기업 대표,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및 일본상공회의소 한국사무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였다.

일본 측은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 매년 제출되는 SJC의 한국투자 일본기업 건의사항 해결, 개정 노조법 우려, 외국기업인 입국 간소화 등 관심사항을 개진하였다. 여한구 본부장은 “미국의 관세조치 및 對美 투자, 중국의 수출통제, EU의 환경규제 등 유사한 글로벌 통상 환경에 놓인 일본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본의 대한(對韓) 투자가 양국 간 공급망 강화로 연결되도록 AI, 반도체, 바이오, 신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여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내년 초 제출 예정인 SJC의 일본기업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하는 등 일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해 지속 힘쓰겠다”고 설명하였다.

산업부는 일본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관계 부처와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향후에도 주요 외투기업과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동북아통상과	책임자	과 장 김덕구(044-203-5690)
		담당자	수석전문관 전우표(044-203-5696)
			사무관 윤소희(044-203-5692)
	투자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상희(044-203-4070)
		담당자	사무관 임은성(044-203-407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주한일본기업 간담회 개요**

□ 행사 내용

○ (일시/장소) '25. 12. 11(목), 14:30 ~ 15:30 / SJC 회의실(프레스센터 14F)

○ (참석)

- 韓(산업부, 4명) 통상교섭본부장, 투자정책과장, 동북아통상과 팀장 등
- 日(SJC·외투기업, 5명) SJC 이사장 및 외투기업 대표, (유관기관, 3명) 일본무역진흥기구 서울소장•부소장, 일본상공회의소 서울소장

< 서울재팬클럽(SJC) 개요 >

○ **(설 립)** '97년 서울일본인회, 서울상공회, JV회가 합쳐진 한국 내 최대 일본 공동체
○ **(임 원)** 마쓰우라 데쓰야 이사장(現 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 부이사장(8명) 등
○ **(회 원)** 법인 약 300개社 / 개인 약 1,200명 등
○ **(구 성)** 6개 전문위원회(상공기획·경영·노동·산업정책·세무·지재) 및 8개 분야위원회(상사·금융·운수·전자·전기·기전·화학·생활)
○ **(주요 기능)** 한국 진출 일본 기업 지원 및 한일 간 경제•우호 협력 촉진 등

□ 진행 순서(안)

시 간		내 용
14:30~14:32	'02	기념사진 촬영
14:32~14:37	'05	모두 발언
14:37~15:25	'48	의견 교환
15:25~15:30	'05	마무리 발언